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6월 29일(월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국·일본, 7월부터 TPP 최종협상 돌입
- 2) 미국, 6월 달러스 제조업지수 - 7.0, 예상치보다 크게 호전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일본, 은행 공급 공적자금 12조엔 회수
- 2) ECB, 그리스 긴급유동성지원 확대할까, 다음 달 1일 결정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일본, 부동산시장 엔저 호황, 대출 사상최대
- 2) 미국 공유경제 확산, 라이드(Ride) 서비스 인기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미국 · 일본, 7월부터 TPP 최종협상 돌입

-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의회가 TPP 교섭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TPA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다음 달 초부터 쌀과 자동차 부품 등 남아 있는 쟁점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 보도
 - 교섭 참가국들은 오는 7월 중 전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국 간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은 95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
- 양국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일본 쌀 수입에 대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임
 - 다만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물량에 대해 미국은 연간 17만5천톤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최대한 물량을 줄이려 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
- 신문은 TPP 참가국 가운데는 본래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일본의 자유화율이 95%를 넘으면 12개국 전체의 자유화율도 95%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
- 한편,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교섭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하순에 열리는 12개국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다른 참가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방침

2) 미국, 6월 달러스 제조업지수 -7.0, 예상치보다 크게 호전

- 지난 29일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계절조정치를 적용한 이달 관할 지역의 제조업지수가 마이너스(-) 7.0을 기록했다고 발표

- 이는 직전월(5월) 기록인 20.8 감소와 전문가 예상치인 16.0 감소보다 더 큰폭으로 개선된 수치
- o 지난달 달러스 제조업지수는 지속된 유가 하락으로 텍사스주 지역 경제에서 석유 연관 산업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인 -20.8을 기록
- o 한편,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의 여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일본, 은행 공급 공적자금 12조엔 회수

- o 지난 29일 교도통신 등은 일본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시중은행에 공급한 12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상당수를 회수했다고 보도
- o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리소나홀딩스, 아오조라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1조4천억엔의 매각수익을 포함, 약 13조7천억엔을 회수
- o 한편, 일본 정부는 지난 1998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능안정화법에 따라 21개 시중은행에 약 1조8천억엔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기전환화법을 만들어 약 8조6천억엔을 2003년까지 추가로 투입

2) ECB, 그리스 긴급유동성지원 확대할까, 다음 달 1일 결정

- o 지난 28일 ECB가 다음달 1일 영업이 일시 중단된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 (ELA)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

- * ELA : 시중은행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유로존(유로화 사용 19개국) 각국 중앙은행이 ECB의 승인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
- o ECB 정책위원 노보트니는 그리스 국민 대다수가 유로존 잔류를 원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협상의 새로운 기반이 되겠지만 아직 불확실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
- o 한편, ECB는 28일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이 마르지 않도록 ELA를 일단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리스는 29일부터 은행 영업을 중단하고 주식시장도 열지 않기로 한 상황
-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가부도(디폴트)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자본통제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일본, 부동산시장 엔저 호황, 대출 사상최대

- o 지난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은행과 신용금고 등의 부동산 대출 총액이 전년 대비 6% 증가한 12조2544억엔으로 나타났다고 보도
- 이는 일본 경제가 버블(거품)에 휩싸였던 1989년(12조 1075억엔)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치
- o 또한, 엔화 약세(엔저)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해외 자금 유입이 가속화 했고 도심의 건축 규제는 완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상황

- 일본의 부동산 대출은 헛수로 5년 연속 증가세, 특히 신용금고의 대출 금액은 12% 늘어나 은행 증가율(5%)을 앞선 상황
 - 일본은행은 시중 은행들 가운데 지방은행의 대출이 약 6% 늘어났지만 대형은행은 해외 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부동산 대출이 지난해 수준을 하회했다고 지적
 -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도 부동산 대출 확대와 금융기관들이 인구 감소와 공장의 해외 이전 등으로 마땅히 자금을 내줄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강화하는 추세로 인한 결과
- 한편, 니혼게이자이는 수요 확대가 대출 증가의 배경이지만 BOJ가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

2) 미국 공유경제 확산, 라이드(Ride) 서비스 인기

- 지난 28일 뉴욕타임스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라이드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두 곳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업 중이라 보도
 - 이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유경제의 변형된 형태
- ‘HopSkipDrive’ 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수업 라이드를 하느라 힘들었던 LA의 엄마 3명이 공동 설립했으며 우버 등의 공유경제에서 영감을 받아 안전에 방점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
 - 이 서비스는 라이드 한번당 12~20달러를 내면 아이를 키운 경험이 5년 이상, 무사고, 범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운전자들이 라이드를 제공하며 위급 상황 대처 등 사전 안전교육은 필수

- o 이 서비스가 일하는 부모와 싱글 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유사업체 ‘Shuddle’ 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
- o 한편,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상과 가정을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인차가 상용화하는 10~20년 뒤에는 이런 서비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